

## 2 사람

# 공석 1년 의무부총장에 우정택 명예교수 임명 “교육·진로 잇는 구조 개편, 지금이 전환기”

하시언 기자 hse0622@khu.ac.kr

## 인터뷰-우정택 의무부총장

# 약 1년여 기간 공석이었던 의무부총장직에 우정택(의학) 명예교수가 임명돼 지난 4월 임기를 시작했다.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, 우 부총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.

### Q. 의무부총장 부임 소감과 각오는?

의무부총장 자리를 맡게 돼 영광스럽다. 동시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도 크다. 하지만 지금까지 병원 진료, 의대 교육, 행정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경험한 경력을 생각하면,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다.

대부분 대학에서는 의료기관장이 의무부총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. 하지만 최근 의료계 내부 갈등과 의정 갈등, 그리고 학문 간 융합이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의료기관과 의학 계열 연구·교육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.

겸직 체제에서는 진료, 수련, 행정, 교육, 연구 등을 동시에 챙겨야 해 집중과 분산 사이에서 효율을 내기가 어렵다. 우리학교는 의대 병원 뿐 아니라 치과병원, 한방병원 등 다수의 병원이 존재하고 있어, 겸직 체제로는 의무부총장의 본연 역할을 수행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구조다.

이런 현실을 고려해, 역할을 분리하는 구조를 새롭게 시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. 이번 체제는 우리학교에서도 처음 도입되는 모델인 만큼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,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역할 분담이 분명해지고,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. 개인적으로도 처음 이 역할을 맡게 되어 의미가 크고, 그만큼 책임감도 크다.

### Q. 의료기관장과 의무부총장을 분리하는 첫 시도인 만큼, 우려되는 점은 없나?

새로운 제도는 항상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. 당장은 혼선이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. 하지만 이런



우 부총장은 “서로 다른 학과가 함께 모여 연구하고, 기초와 임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
(사진=박서연 기자)

문제는 결국 꾸준한 소통과 조율을 통해 풀 수 있다고 본다.

진료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보았고, 의대 학장직을 수행하며 학생 교육과 커리큘럼 운영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. 의료기관 보직도 여러 번 맡았기 때문에, 병원과 대학 양쪽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.

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두 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. 현재는 체제 전환기지만,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양쪽 조직이 더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.

### Q.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의대생 유급 문제가 심각하다. 특히 24, 25,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‘트리플링’ 문제도 있는데, 이에 대한 대응책은?

이 문제는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. 우리나라 전체 의료교육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본다.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학이 발맞춰야 하겠지만, 그에 따른 교육 혼란은 결국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.

현재 상황에선 교수의 교육적 부

담이 클 수밖에 없다.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교육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. 총장님이 최근 선포한 ‘교육 혁신 비전’과 함께 출범한 교육혁신추진단의 역할이 여기에 중요하다.

AI 시스템, 에듀테크 같은 디지털 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현 상황에서 많은 학생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.

코로나 시기 의대생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한다. 의학 교육은 기본적으로 지식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과 동영상 강의가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.

장기적으로는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실습, 토론,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교육을 재편해 가야 한다.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교육 모델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.

### Q. 실습수업에 대한 대책은?

실습수업은 시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. 하지만 임상 실습은 병원 공간과 환자, 교수 인력이라는

현실적 제약이 있어 더 복잡하다.

현재 3, 4학년 학생 가운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인원이 있고, 이들은 결국 유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유급자가 늘어나면 향후 실습 인원이 급증하게 되는데, 인원이 두 배, 세 배가 되면 교수와 직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.

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병원 내부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. 필요하다면 지역 중소병원과 협약을 맺어 실습 인프라를 확장하고, 학생에게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의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.

### Q. 의대, 한의대, 치대뿐 아니라 간호대, 약대까지 갖춘 통합 보건의로 체계를 갖고 있다. 메디컬 계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?

의학, 치의학, 한의학, 간호학, 약학이 모두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, 궁극적으로는 환자와 건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한다. 하지만 교육과 연구에서는 여전히 분절돼 있다. 이 부분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.

이를 해결하기 위해 융합의생명 과학원 같은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. 서로 다른 학과가 함께 모여 연구하고, 기초와 임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. 이런 구조를 통해 학문 간 시너지를 키우고, 대학 차원의 대표 연구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.

### Q. 의무부총장 자리는 1여 년간 공석이였다.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?

처음으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모두 겸임한 교수로 발령받았던 경험이 있다. 두 영역에 걸친 커리어가 있어 지금 의무부총장에 잘 맞는다고 본다.

과거 의대 학장, 병원 경영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행정과 교육, 의료현장을 모두 경험했기에, 대학과 병원 사이에 존재하는 부조화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.

그 출발점은 연구라고 본다. 기초교수의 기술과 역량, 임상교수의 현장성과 문제의식을 연결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.